

외과적 관점



조 용 석 앞선치과병원

-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-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
-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졸업 (치의학박사)
-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
- 충북대학교 부속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
-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인정의
-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
- Osstem faculty & AIC course director
- AO active member
- EAO member
-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
- 앞선치과병원 원장

임프란트의 실패는 크게 biological failure, mechanical failure, functional failure, esthetic failur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실패의 원인은 over heating, weak initial stability, premature loading, infection, screw loosening or fracture, implant fracture, occlusal overload, peri-implantitis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.

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에 따른 정교한 수술과 보철 술식이 실패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임상에서 100% 성공을 얻기란 어려우며 누구나 임프란트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.

실패한 임프란트를 해결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만큼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겠고 때로

보철적으로 해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연자는 임프란트의 실패 중 외과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 중 비교적 빈도가 높은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- 임프란트의 실패를 줄이는 수술방법
- 식립 각도가 좋지 못하거나 위치가 잘못 십립된 임프란트를 외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
- Bone heating으로 인하여 실패한 임프란트를 해결하는 방법
- 파절된 임프란트의 해결법
- 심미적으로 문제가 된 임프란트의 해결법
- 상악동 거상술과 동반된 임플란트 실패의 해결법